

보도일시	2018. 7. 31.(화) 조간(온라인 7. 30. 12:00)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 *		
배포일시	2018. 7. 30.(월) 09:00	담당부서	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, 전파기반과
담당과장	배영식 과장(061-338-4700) 허원석 과장(02-2110-1960)	담당자	황근철 사무관(061-338-4710) 박경환 사무관(02-2110-2813)

전파인증 제도개선으로 기업부담 크게 완화된다.

-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·시행 -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립전파연구원은 **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** (‘KC 인증’)과 관련된 기업들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하고, 스마트 산업 촉진 등을 위해 「**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**」를 개정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전파인증(적합성평가 제도)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 혼·간섭 방지, 전자파로부터의 기기 및 인체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·판매·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도

-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크게 ▲ **산업용 무선기기 전파인증의 규제 완화**, ▲ **병행수입업체의 전파인증의무 완화**, ▲ **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 신설** 등 중소기업의 전파인증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것으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를 **적합인증**에서 **등록**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.

- 무선기기 중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일부 기자재의 경우 ‘**적합인증**’에서 ‘**적합등록**’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**전파인증 비용 부담 경감** 및 **처리기간을 단축**하는 한편, 신산업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시장의 적시 출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.


② 동일 수입기자재의 경우 **시험절차**를 생략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, **공동 적합성평가 시험 신청제도**를 신설하였다.

-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·유통 시 인증받은 동일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발 수입업자(㉔)가 추가 시험 없이 **先인증자(㉑)의 동의서**를 받아 **인증절차**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**인증비용 절감**과 **기간이 단축**되도록 하였다.
-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·유통 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다수의 병행수입업체(㉑, ㉒, ㉓)가 있는 경우에는 **전파인증 시험을 공동으로 실시**하고 각각 시험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.



- 이외에도 전파인증 신청 시 제품 회로도를 제출하지 않은 전파인증 기자재에 대한 **시험성적서 제출기간을 연장(대 1년→2년)**, **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·운영 규정 신설**, **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규정** 등이 이번 고시 개정 내용에 함께 포함되었다.
-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“이번에 개정된 고시내용은 지난 1월 **규제혁신 토론회**(17.1.22)와 **중소기업인 간담회**(17.1.29) 등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으로,
-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출입 업체와 중소기업 등의 **전파인증 비용 부담과 기간단축** 등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**관련 산업이 촉진**되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전파인증과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**제도개선에 반영**하고 **불합리한 규제를 혁신**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☐ 자세한 고시 개정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(<http://tra.go.kr>) 법령
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. 끝.

 광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황근철 사무관(☎ 061-338-471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